

이 글은 TechCrunch 'For Microsoft, Nokia Represents A Crossroads In Its Emerging Markets Strategy', Ad Age 'Microsoft to Buy Nokia Mobile Phone Business for 7.2Billion',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Android Powers Almost 75% Of All Smartphones Sold In Q1 2013; Samsung Gains Highest Market Share of 30.8%, Says Gartner', Business2community '2013 Roundup of Mobility, Smartphone and Tablet Forecasts & Market Estimates'를 바탕으로 번역, 정리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변동 예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8조원에 노키아(Nokia) 인수



9월 3일 세계 스마트폰 산업에 큰 이슈가 일어났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서 한 때 모바일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핀란드의 노키아를 72억 달러(약 8조원)에 인수한 것이다. 이로써 MS도 애플(Apple), 구글(Google)처럼 독자적 스마트폰 제조라인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수가 작년부터 공공연히 떠돌던 루머였다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MS-노키아 인수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은 해외언론은 물론이고 국내언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과 애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삼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MS의 노키아 인수 결정, 어쩔 수 없는 선택?

현재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와 애플의 iOS2체제로 확연히 나뉘진 상황이며, 스마트폰기 시장의 경우도 삼성(30.8%), 애플(18.2%), LG(4.8%)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OS와 스마트폰기 시장 양쪽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표 1〉 2013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

Operating System	1Q13 Units	1Q13 Market Share(%)	1Q12 Units	1Q12 Market Share(%)
Android	156,186.0	74.4	83,684.4	56.9
iOS	38,331.8	18.2	33,120.5	22.5
Research In Motion	6,218.6	3.0	9,939.3	6.8
Microsoft	5,989.2	2.9	2,722.5	1.9
Bada	1,370.8	0.7	3,843.7	2.6
Symbian	1,349.4	0.6	12,466.9	8.5
Others	600.3	0.3	1,242.9	0.8
Total	210,046.1	100.0	147,020.2	100.0

〈표 2〉 2013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기 시장 점유율

Company	1Q13 Units	1Q13 Market Share(%)	1Q12 Units	1Q12 Market Share(%)
Samsung	64,740.0	30.8	40,612.8	27.6
Apple	38,331.8	18.2	33,120.5	22.5
LG Electronics	10,080.4	4.8	4,961.4	3.4
Huawei Technologies	9,334.2	4.4	5,269.6	3.6
ZTE	7,883.3	3.8	4,518.9	3.1
Others	79,676.4	37.9	58,537.0	39.8
Total	210,046.1	100.0	147,020.2	100.0

* 자료 : Gartner 제공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애플은 아이폰5S와 5C, 그리고 iOS7을 동시에 출시하며 많은 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이처럼 애플은 그들만의 강력한 하드웨어(아이폰)와 함께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iOS)를 판매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MS의 노키아 인수는 구글이 모토로라(Motorola)를 인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안드로이드 OS만 공급해오던 구글은 그들만의 스마트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토로라를 인수하였다. 삼성도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인텔(Intel)과 '타이젠'이라는 OS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물론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를 통해 이미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도 휴대폰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MS-노키아'의 처지(?)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동시 보유'를 통한 '그들만의 생태계 구축'은 모바일 시장 전체의 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따라서 '윈도우'라는 확고부동한 PC OS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사업 쪽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MS와, 스마트폰 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퇴의 수순을 거치고 있던 노키아의 만남은 어쩌면 다소 늦은 감이 있

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MS - 노키아,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태된 두 회사의 만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MS의 '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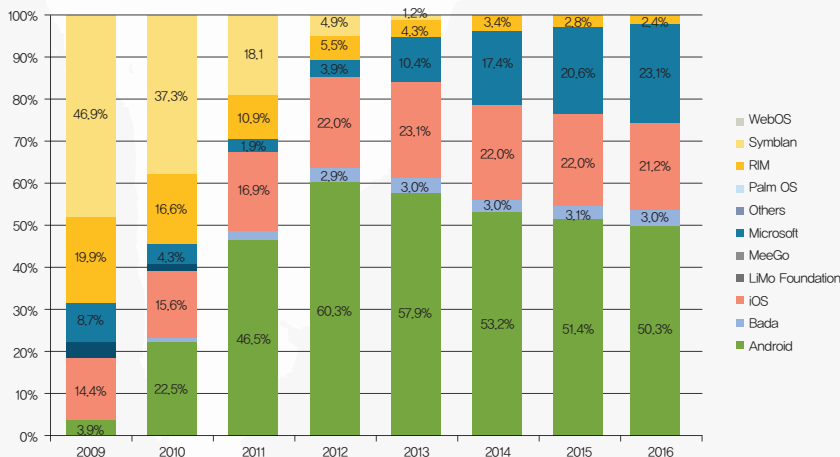
MS는 이번 인수를 통해 윈도우 기반의 스마트폰 OS를 확산시켜 구글,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을 3자 경쟁구도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바램대로 MS가 노키아의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을 이용해, PC의 윈도우 OS와 스마트폰의 윈도우 OS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물론 이번 결정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늦은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MS의 노키아 인수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보다는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PC 시장에서 M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들이 보유한 자금력, 그리고 노키아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번 MS-노키아 인수 건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MS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KAA**

유재형 yoojh1999@kaa.or.kr

〈표 3〉 2009 - 2016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 예측



*Gartner는 마이크로소프트 OS 점유율이 2012년 3.9%에서 2016년 23.1%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